

“배 폐목 공예품으로 나주 생태·환경 혁신”

안태정 (주)컴퍼니안 대표

올해 지역혁신가·문화활동가·로컬크리에이터 부문 석권 나주 소반 공예 키트 보급 등 지역 전통문화 확산 큰 기여

“버려지는 나주 배 폐목이 나주소반으로 변신한 것처럼 지역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접목해 생활 공예로 재탄생시키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나주 배 폐목재를 업사이클링한 공예품 개발 사업으로 지역혁신가로서 전통 공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안태정 (주)컴퍼니안 대표. 안 대표는 공예와 한복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기획사’로 통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나주시의 기업 유지 사업을 계기로 나주에 ‘컴퍼니안’을 설립했다.

특히 안 대표는 고령화와 탈농촌 등 이유로 감소하는 배 농가와 그에 따라 폐기되는 배나무에

주목했다.

안 대표는 배나무 폐목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윤희진 목공예 작가와 이상용 디자이너 등 협업으로 ‘배폐목 업사이클링 공예품’ 개발에 나섰다.

과수원 폐원으로 방치되거나 퇴비로만 쓰이던 배나무 폐목이 전통 공예품인 ‘나주소반’으로 변신하게 된 것.

안 대표는 “나주의 배 재배 농가 수는 2019년 2천192호에서 지난해 1천587호로 605호나 감소했는데, 과수원 폐원으로 버려진 배나무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알게됐다”며 “배나무 폐목이 지역을 상징하는 콘텐츠로써 일상에서 사용되는 ‘자원순환’에 여러 작가들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주배 폐목재 업사이클링 공예품 개발



사업을 통해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태·환경 부문 지역혁신가로 선정됐다. 특히 8팀에만 주어지는 지역혁신가 우수 혁신 사례로도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 전에도 지난 5월 그가 이끄는 컴퍼니안이

지역문화 활동가로 선정되는 첫번째 성과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지역문화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나주 시민들에게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을 선보이고 지역 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알렸다.

지난 6월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최하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전남 지역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안 대표는 나주 지역의 특성과 배나무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배꽃 모양의 부채와 배꽃 컵리드 등 배나무 폐목재를 활용한 공예품을 개발 중이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김영민 이수자와 함께 개발한 나주(소)반 키트를 보급하는 등 나주 전통문화를 알리고 있다. 키트판매 수익금은 나주 지역의 소외계층 대상 후원금으로 적립, 지역사회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나주 지역의 폐자원을 활용한 이러한 활동은 ‘자연이 자란다’는 컴퍼니안의 모토와 일맥상통한다”며 “지역혁신가로서 나주의 전통 공예 문화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 보급하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오승지기자



한화솔루션·한화,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한화솔루션(주)·(주)한화와 여수소방서는 최근 소라면사무소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은 ‘안전한 도시 여수’라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기증 물품은 여수지역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층에 보급된다.

각 기관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뿐만 아니라, 노후 주택 안전 점검, 소방행정 홍보 등을 2024년까지 지속 사업으로 진행한다.

한화솔루션(주) 관계자는 “소방서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업무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증된 물품을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목포소방서, 청렴 공직문화 직장교육

목포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최근 소방공무원 임용 3년 미만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청렴 공직문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박원국 소방서장의 훈시와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정영오(전 합평군 기화갑사실장) 전만경사(청탁금지법 교육과 감감독 전남지방경찰청 경위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로 진행됐다.

교육이 끝난 뒤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직원 간 소통 역량 향상 워크숍도 실시했다.

박원국 목포소방서장은 “청렴은 목표가 아닌 기본 가치인 만큼 교육을 통해 소방 조직 내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적극행정 행정혁신’ 특강

해양경찰교육원은 24일 “최근 교육원 소강당에서 교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 행정을 통한 행정혁신’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지방행정의 달인 1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장을 역임한 최덕림 지방자치경영연구소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최 강사는 무분별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순천만이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생태습지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한 지역 주민 설득, 조사 과정 등 역경 극복 사례를 소개했다.

최 강사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과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적극 행정을 통한 혁신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발현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전남대 경영대 동창회, 故 김성산 부회장 추모세미나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동창회(회장 박헌택·영무도건 대표)가 모교 경영대학 출신인 김호그룹 故 김성산 부회장을 기리기 위해 제1주기 추모세미나를 지난 21일 오후 동구 대인동 문화공원 김넋과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규모로 김성산 부회장의 유가족 및 지인, 동창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헌택 동창회장의 추모사와 함께 고인의 경영철학 및 일상 생활속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대 정용기 교수의 사회로 기조발표는 ‘김성산 부회장의 고객행복경영론’을 주제로 전남

대 심택섭 교수가 발표했다. 48년 금호맨이자 광주경제계의 산증인 이었던 김성산 부회장의 고객행복경영과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사기위인’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토론은 채동석 前삼성전자 부사장, 김형수 前금호그룹 상무,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고인과의 인연 및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그리고 참여자 모두 광주를 넘어 한국경제를 이끌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한 기업인으로서 김 부회장을 재조명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고심하고 항상 공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들에게는 파스했던 故 김성산 부회장을 추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임재만기자



‘인본주의 건축 지향’ 나무심는 건축인 4기 출범

나무심는 건축인 4기가 지난 22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나무심는 건축인은 ‘나무를 심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인본주의 건축을 지향하는 건축문화운동 모임이다. 이날 행사는 남구 노대동 분적산 근린공원에서 10년생 배롱나무 50그루를 식재하는

기념식수 행사와 함께 열렸다.

박홍근 나무심는 건축인 상임대표는 “작은 참여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했다”며 “생활 속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진기자

목포경찰, 금융기관장 전화금융사기 근절 간담회

목포경찰서는 24일 “최근 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차복영 목포경찰서장을 비롯해 목포농협, 목포수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자를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며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차복영 서장은 “최근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의심자가 있으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



동해 조치할 수 있도록 112에 신고를 해달라”며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남도포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초청 강연

«21세기남도포럼(상임대표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은 지난 21일 광주 서구 라페스타 연회장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초청, 제237회 회례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남도포럼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당사국의 셈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통일부와 국회의교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정 대표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비핵화 달성은 한반도 평화 실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한 뒤 “남·북한과 미국의 신뢰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회의 시간은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훈기자



LG화학 여수공장, ‘로컬밸류업’ 성과 공유회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윤명훈 전무)은 24일 “지난 6월부터 운영한 ‘LG소셜 캠퍼스 로컬밸류업’ 프로그램이 최근 디오션호텔에서 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로컬 밸류업’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인재들을 지원하는 LG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로컬 밸류업’은 6월 모집을 시작으로 총 8개 팀, 14명의 참가자가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8주간의 트레이닝 캠프·전문 멘토링 과정을 거쳐 각 분야(교육·근로·문화)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솔루션을 도출했다. /여수=김진선기자

성과 공유회를 통해 각 팀의 최종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등의 상금을 지원했다. 대상은 딸라라팀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제공’ 주제로 수상했다.

성과공유회 후에는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네트워킹 지원, 지역 전문가·자원 연계 등 사업화 연계와 후속 지원으로 LG소셜캠퍼스 캠퍼스, 지속적인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LG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은 24일 “최근 산림청 주관 ‘산림분야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산림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산림보호 단속·복구 ▲산사태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달성 ▲산불방지 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 8개 지표 평가 중 3개 지표 이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산사태 발생을 선제 예방하기 위한 사방시설 주기 전 시공, 생활권 주변 조림사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적극적인 산불 예방·홍보활동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흥준 산림정원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 산림 보호에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조성, 산사태·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결론

●김기현(기옥건설 대표)·주명희씨 아들 현기(극동건설)군, 정철(호남대 홍보실장)·윤미숙씨 딸 희운(남도일보 문화체육부 차장)양=11월6일(토) 낮 12시40분 광주 서구 삼주자유로 JS에딩을 3층 그레이스.

●최승호(석곡블럭 대표)·송인숙씨 아들 민석군, 김동원(법무법인 맥)·최명숙씨 딸 별(광주 용주초등학교)양=11월6일(토) 오전 11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까사디루체에딩을 1층 루체.

●류영문(그랜드홀코리아) 대표·이혜용씨 아들 창민군, 노병문·전미희씨 딸 은숙양=11월6일(토) 낮 12시30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W1컨벤션 1홀.